

Contents



통계로 보는 국제물류

- 독일 물류회사, 항공화물 부문 석권



물류정책 · 산업동향

1. DHL Supply Chain, 아시아 지역에 스마트 창고 도입
2. PSA, 미 동부 Penn 다목적 터미널 인수
3. 식음료 업계, 드론·로봇 활용해 배달
4. 영국, 네덜란드, 브렉시트 대응책 발표

명사 스피치

“물류대행사들이 적정단가로 수주하는 방식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며, 화주는 비용 절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적정금액을 지불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요구하는 구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. 그래야만 우리나라의 물류서비스 수준이 더욱더 향상되고 고객이 만족하는 물류대행이 될 것입니다.”

김근택 (주)다원로지스틱스 대표이사
(2019. 9. 5. / 코리아쉬핑가제트 인터뷰 기사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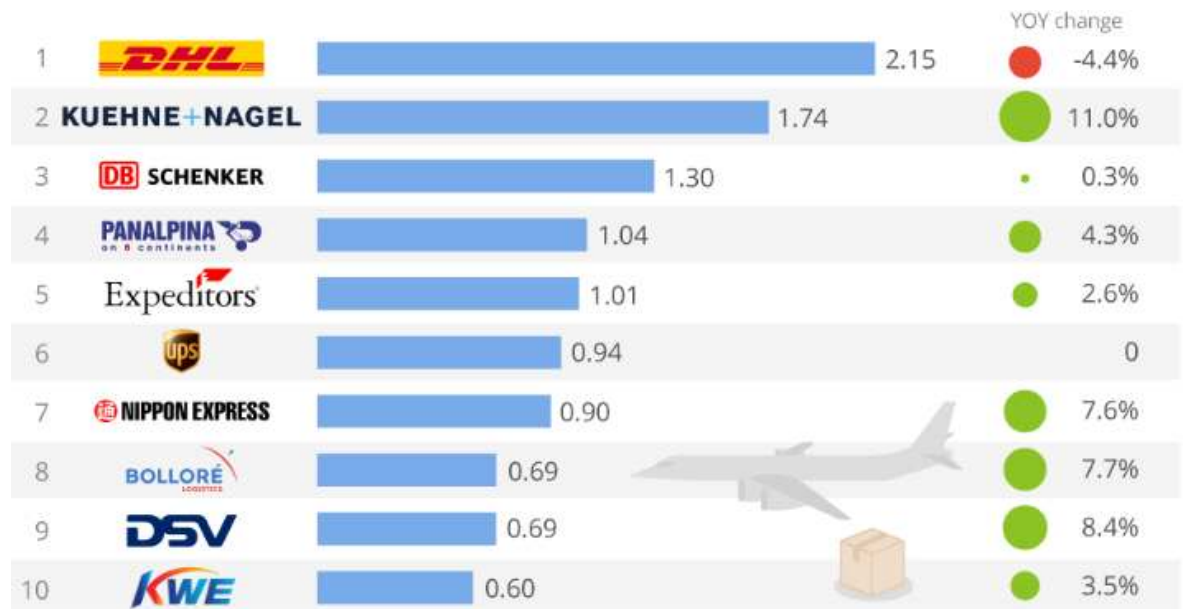


통계로 보는 국제물류

독일 물류회사, 항공화물 부문 석권

2018년 글로벌 10대 물류 기업(항공화물 기준)

(단위: 백만톤)



주: <https://www.statista.com>

- 2018년 세계 10대 물류 기업 순위에 따르면 독일 물류회사가 전 세계 항공화물 부문에서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
 - DHL, Kühne+Nagel 및 DB Schenker는 매출 기준으로 각각 2천 8백만 달러, 2천 5백만 달러, 2천만 달러를 기록해 세계 1~3위를 차지했음
- 지난해 DHL Global Forwarding은 2백만 톤 이상의 항공화물을 처리했으며, 2위인 Kühne+Nagel은 170만 톤을 처리함
- DHL Global Forwarding은 화물량이 4.4 % 감소해 항공 부문에서 상위 40개 회사 중 가장 큰 감소세를 보임
 - 반면 Kühne+Nagel은 전년 대비 11%의 성장률을 보임

참고자료 : <https://www.statista.com>

이기열 부연구위원

051-797-4670, kylee@kmi.re.kr



DHL Supply Chain, 아시아 지역에 스마트 창고 도입

- DHL Supply Chain이 아시아 시장 고객인 Tetra Pak을 위한 스마트 창고를 도입함
 - 글로벌 물류 업체인 DHL Supply Chain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다국적 식품 유통 회사인 Tetra Pak을 위한 디지털 트윈 창고를 도입했으며, 이는 DHL이 아시아에 시도한 최초의 스마트 창고임
 - DHL Supply Chain은 최적화된 효율적인 공급사슬 구축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염두에 두고 디지털 트윈 창고를 도입함
- DHL Supply Chain은 효율적인 공급 사슬 구축을 위해 디지털 트윈 창고를 도입
 - 싱가포르에 있는 Tetra Pak의 창고를 대상으로 통합적인 공급 사슬 구축을 위해 적용된 디지털 트윈은 싱가포르의 실제 창고로부터 실시간 데이터를 공급받아 적용하고 있음
 - DHL Supply Chain Singapore의 Jerome Gillet CEO는 Tetra Pak의 보관 및 운송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이러한 디지털 기반의 솔루션 구현은 미래 스마트 창고의 훌륭한 예이며, 이로 인해 기민하고 비용 효율적(cost-effective)이며 확장 가능한 공급사슬 구축이 가능하다고 언급함
- DHL Supply Chain과 Tetra Pak은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물류 생산성 증대를 꾀함
 - Tetra Pak은 상품의 물리적 상태와 개별 재고 수준을 실시간 추적 및 시뮬레이션하여, 원활한 운영 및 결함 최소화를 통해 창고의 안정성과 생산성 개선을 위한 스마트 스토리지 솔루션을 개발함
 - DHL Supply Chain은 IoT 기술이 탑재된 산업용 트럭과 같은 물리적 물체에 대한 기술과 프로세스에도 중점을 두고 있으며, 입고 및 발송 물품을 추적하여 모든 물품이 30분 내에 보관되도록 하고 있음
- Tetra Pak은 DHL Supply Chain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생산성 증대 등을 기대함
 - DHL Supply Chain Singapore는 고객 요구 달성을 위한 지역의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, 물류 관리 및 운영 아웃소싱용 제3자 물류(3PL · Third-party Logistics) 솔루션을 제공함
 - Tetra Pak의 Devraj Kumar 남아시아, 동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통합 물류 담당 이사는 DHL Supply Chain과의 파트너십이 생산성을 더욱 높이고 공급망의 높은 표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함

■ 참고자료 : <https://www.supplychaindigital.com> 2019.8.16.

안승현 전문연구원

051-797-4693, shan@kmi.re.kr



PSA, 미 동부 Penn 다목적 터미널 인수

- 싱가포르 터미널 운영사인 PSA는 MIRA(Macquarie Infrastructure and Real Assets)의 관리 펀드로부터 미동부 필라델피아 항만(Port of Philadelphia) 남서쪽에 위치한 펜(Penn) 다목적 터미널을 인수함
 - 델라웨어 강(Delaware River)에 위치한 펜 터미널은 컨테이너를 비롯해 냉장·냉동화물, 철강, 파이프, 목재 등의 벌크화물 취급에 대한 신뢰성과 효율성이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음
- 펜 터미널은 지난해 말 포스트 파나마급(Post-Panamax) STS 크레인 2개를 추가로 도입해 총 4개의 크레인을 보유하고 있음
 - 부패하기 쉬운 화물취급을 위한 80,400입방미터(cubic meters)의 온-도크(on-dock) 냉동 창고는 펜 터미널의 핵심 인프라임
 - 미국 수입과일의 약 40%가 델라웨어 강을 경유하고 있으며 연간 약 400백만 톤으로 추산됨
- PSA 그룹의 탄충멍(Tan Chong Meng) CEO는 “이번 인수는 PSA의 미국 첫 진출에 의미가 있다. 펜실베이니아 주, 고객, 직원, 지역 사회 뿐만 아니라 대서양 중부 지역을 넘어 업체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펜 터미널의 기능과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”이라고 밝힘
- PSA는 지난 8월에 캐나다 동부 핼리팩스항(port of Halifax) 내 할텀(Halterm) 컨테이너 터미널을 인수했으며 5월에는 폴란드의 최대 컨테이너 터미널인 DCT 그단스크(Gdańsk)를 공동 인수함

■ 참고자료 : www.seatrade-maritime.com, 2019.09.02.

이자연 전문연구원

051-797-4685, jylee@kmi.re.kr

식음료 업계, 드론로봇 활용해 배달

- Coca-Cola European Partners(CCEP)는 지난 22일 Alton Towers Resort에서 로봇을 이용해 음료를 제공하는 배달 시연을 진행한다고 밝힘
 - 로봇은 Alton Towers 유통 센터에서 제품을 수집한 후 인공지능을 활용해 여름 성수기 동안 수천 명의 방문객을 통과해 공원의 음료 매장에 제공할 것이라 밝힘
- CCEP의 부사장 겸 총괄 책임자인 Leendert Den Hollander씨는 “TeleRetail의 로봇은 24/7 주문형 물류 서비스를 가능케하고, 더 큰 차량으로 확장 할 수 있는 기술을 시험하는 방법중의 하나의 완벽한 예” 라고 말함
- 신생 드론 회사 Flytrex의 CEO이자 공동창립자인 Yariv Bash씨는 “머지않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상업용 드론을 통해 무인 식품 배달을 시작할 것이며 드론을 활용해 식품 콜드체인 물류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”이라고 말함
 - 드론 서비스 회사인 Causey Aviation Unmanned와 함께 노스캐롤라이나 홀리 스프링스에서 드론으로 음식을 배달할 수 있도록 미 연방항공국(FAA)의 승인을 받았음
- 이외에도 식품배달에 드론을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으며 앞으로 더욱 드론을 활용한 식품 배송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
 - Alphabet은 호주의 식품 물류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드론 기술을 사용해 버지니아에서 음식 배달을 시작하기 위해 FAA의 승인을 받음
 - 아마존은 지난 6월 프라임어 드론을 출시했으며 아마존 플랫폼에서 식품을 제공할 계획
 - Uber Eats는 고밀도 도시 지역에서 드론 음식 배달을 위한 최초의 상용 테스트를 하고 있음

Coca-Cola Alton Towers 테마 파크 배송 로봇 시연



자료 : <https://www.ccep.com>

참고자료 : www.ccep.com, 2019.08.22. / logisticsmgmt.com, 2019.08.28

오연실 연구원

051-797-4607, ohys@kmi.re.kr

영국, 네덜란드, 브렉시트 대응책 발표

- 영국 교통부(U.K. Department for Transport)은 ‘브렉시트(brexit)’ 시행에 대비해 항만 인프라 복원 사업(Port Infrastructure Resilience Call) 방안을 발표함
- 본 사업 방안에 따르면 향후 총 1220만 파운드(한화 177억원) 상당의 예산을 투입, 검역 시설과 도로를 확충할 예정임
 - 주요 항구 당 100만 파운드 가량을 투자, 총 10개 항구의 시설을 확충할 예정임
 - 특히 포츠머스와 도버 항의 경우 도버 해협을 통해 EU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많이 반입되고 있어 검역 시설 확충 및 차량의 접근 용이성을 위한 도로 확장을 진행할 예정임
 - 즉, 향후 검역 강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물류 흐름 정체 관련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
- 이는 브렉시트 발표 당시 발생했던 물류 대란을 사전에 고려한 것으로 보임
 - 영국 항만 협회(British Ports Association)는 브렉시트 발표(안) 시점부터 현재까지 3년간 정부와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도출, 준비해 왔음을 강조하고 있음
 - 한편 영국 항만 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, 1억 2천만 톤의 항만 물동량을 기록해 직전 분기 대비 6%에 달하는 증가세를 보인 점은 제조업계의 원자재 확보 영향에 따른 것으로 추측함
 - 그러나 일부 원자재¹⁾의 경우, 노딜 브렉시트(no-deal-brexit)의 여파로 단 2주 만에 비축량이 모 두 소진되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음
- 이와 더불어 영국 정부에서는 이달 초 10개 항만과 공항에 대한 ‘자유 무역 지역(free port status)’ 지정 방안을 발표함
 - 해당 지역을 무관세 지역으로 설정해 원자재 및 제조품의 수출입을 관세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, 수출입 흐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
-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비해 많은 기업들이 네덜란드를 선택하고 있음
 - 네덜란드 투자유치청(NFIA)은 2019년 8월 현재 62개 기업이 영국에서 네덜란드로 이전한 것으로 보고 있음.
 - 해당 기업들의 이전 효과로 지금까지 총 2,500개의 일자리 창출과 3억 1천만 유로(한화 4,123억) 상당의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함
 - 그리고 현재까지 325개사의 이전 상담이 이뤄졌고, 총 100개 기업이 이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많은 기업들이 영국에서 네덜란드로의 이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²⁾
 - 특히 컨테이너 화물 경유지를 영국의 포츠머스, 도버 항에서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항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네덜란드 국영방송(NOS)이 보도하고 있음
- 이는 최근 동북아 지역의 정세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대처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
 - 최근 한·일 양국 간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요 항만에서도 수출통관 지연 예상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

1) 밀(wheat)과 분유(milk powder)

2) 유럽 시장 접근과 언어 문제에 대한 해결 용이성에 강점이 있음. 특히, 방송업 등 일부 산업에서 필요한 EU 라이선스 확보 문제에도 네덜란드는 최적의 입지로 손꼽히고 있음



- 특히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부산항의 환적화물 물동량 감소 등 거시적인 환경이 악화되고 있음.
이 현상이 장기화 될 경우 지역 및 관련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
-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네덜란드의 대응은 동북아 지역에서 불확실성 발생 시 대안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음

● 따라서 브렉시트에 대응하는 영국의 동향을 참고할 필요성이 있음

-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주요 항만 교역량의 44%(2018년 기준)에 달하는 EU 지역과의 호혜가 사라짐에 따라 물류 관련 혼란에 대비하고자 본 방안을 발표한 것임
- 이를 우리나라에 대입하면 한·일 모두 양 국가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, 상호 간 호혜가 상당부분 사라지면서 물류 흐름 정체와 관련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유사함
- 따라서 영국의 브렉시트 시행 후 발생 가능한 혼란에 대한 대응은 향후 성공/실패 사례로서 본보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

● 이와 더불어 대안으로서 떠오르는 네덜란드의 장점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음

- 미중 무역 분쟁 발생 등 동북아 지역의 거시적인 물류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항을 비롯한 국내 물류 거점 기지가 네덜란드의 사례와 같이 공급사슬의 한 축으로서 현재 확보하고 있는 접근성과 함께 투자처로서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
-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네덜란드는 입지 및 인력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음. 우리나라의 경우 아메리카 대륙과 아시아 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이 있음
- 따라서 해운업을 비롯해 주요 물류 산업에서 글로벌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은 동북아 지역의 물류 및 4차 산업의 거점 지역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

■ 참고자료 : supplychaindive.com 2019.8.29.; www.nos.nl, 2019.8.29.

김광모 연구원

051-797-4616, momo09010@kmi.re.kr